

다니엘의 70이레 해석 - 490년간의 이스라엘¹⁾ (490 Years of Israel's Government)

다니엘은 이 장을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했던 원년에 기록하였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치리라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였다. 그는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잃고 죽은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것이 다니엘을 슬픔에 잠기게 했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했다. 다니엘은 '날수를 세어 너희 나라를 끝내며 나누리라'는 벽에 쓴 글씨를 기억하고 더욱 힘써 기도했다. 이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생길 일과 그 일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까지도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단9:25)

BC.575년의 153년 전인 BC.728년에 이사야는 고레스(Cyrus)라는 고유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가 칙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은 BC.551년 고레스 원년에 정확히 실현되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사 44:28)

'하나님이 택한 왕이 오실 때 까지 49일(49년)과 434일(434년)이 지날 것이며, 그 49일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고레스의 칙령은 그의 원년(551 B.C.)에 발표되었으며, 49년 후인 BC.502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인 느헤미야가 다리우스 20년이 되는 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심할 때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4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장차 한 강력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걱정하신 종말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이며 끝 날까지 전쟁과 파괴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일(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

1) 유진 폴스티히 저, 오르(김요한) 역, [하나님의 시계 이스라엘], 성경과학연구소 2021, 2장 참고.

을 더럽히며 거기에 흥축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단 9:26-27)



폼페이는 성전으로 들어가 7년의 절반인 3년 반 후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161 B.C.에 로마와 맺은 동맹은 파기되었다. 그리고 삼년 반 후인 61 B.C.에 줄리어스 시저와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지방으로 왔고 다니엘이 예언한대로 490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부를 사실상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때는 로마와 동맹을 맺은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로마의 폼페이를 말하지만, 팔레스타인의 황폐함에 대해 예언한 것이기도 하다. 그 곳의 황폐함(desolation of Palestine)이 작정된 종말에 끝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돌아온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닐까?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암 9:14-15)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메시아 힐카누스(Hyrcanus II)는 그의 동

생(아리스토틀라)과 폼페이(음모)의 폐위를 당하였다. 로마 장교 폼페이는 그 당시 로마군을 괴롭혔던 지중해의 해적들을 소탕하고자 했다. 로마는 다니엘 7장에서 가장 무섭게 묘사된 짐승이었는데, A.D. 70년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화(desolate)시켰다.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이기도 하다.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단 7:12)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434년 후 제거될 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언급된 메시아인 '힐카누스(Hyrcanus)'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사실상 BC.61년에 끝이 났다. 첫 번째로 짐승들의 정해진 생명의 시간이 끝나는 것은 90년 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A.D.30)이다. 두 번째로 끝나는 것은 360년 후,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에게 사죄했을 때 (A.D.390)이다. (7장을 보면 더욱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이 역사적인 사건 이후 300년이 지났을 때, 모슬렘의 회교 사원이 세워졌고, 1260년 후 이스라엘의 이민법이 제정되었다. (12장 참조)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과 70주 예언²⁾

다니엘이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복지를 위해 아직 기도하는 동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늘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미 오고 있는 중이었다. 다니엘은 20절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저녁 봉헌 즈음에 다니엘을 만났다. 이 예물이 성전에서 드러지곤 했던 때는 황혼이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이 익히 이해하도록 해주라는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내려졌다. 그리고 70 숫자와 관계된 기간에 관해 다니엘에게 알려주라고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았다. 다니엘서 9장의 서두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70년을 연구하고 있었다 (단 9:2). 이 지점에서 그는 70주의 예언을 환상 중에 받았다 (단 9:24-27).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

2) 유진 폴스티히 저, 양승원, 김명현 2차 번역, [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1, 9장 참고.

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즘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찌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메시아A - 예수)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메시아B - 느헤미야)**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메시아C - 힐카누스 제사장)**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단 9:20-27)

24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메시아A - 예수)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메시아B -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메시아C - 힐카누스 제사장)**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흠정역 단9:2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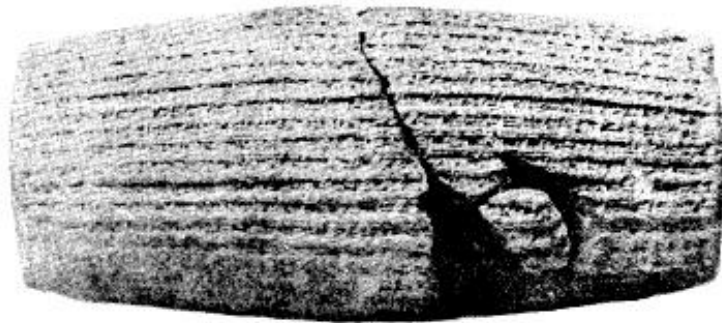
70주의 큰 계시를 소개하는 23절의 긴 전문은 그 자체로 이 계시의 중요성에 대한 증언이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위해 기도해왔기 때문에, 70 이레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닥칠 것들과 그 성과 성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하는 것 외에, 고레스와 그의 예고된 바빌론 성의 함락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생각난다.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소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찢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 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시기를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견 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 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

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
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
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사 44:24-45:4)

위의 예언이 다음의 환상에 대해 빛을 비춰준다고 믿는다. 다니엘은 예레미
야가 예고한 70년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언제 고레스가 그의 칙령을
공표할지 의아해했다.



나라들에 보내는 고레스의 칙령

70이레 예언은 그 출발점 (*terminus a quo*)이 역대하 36:22-23과 에스라
1:1-4에 인용된 고레스의 칙령이다. 역사는 고레스가 그의 제 1주년(주전 551년)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모두에 대해 유명한 칙령을 공표했다고 기록한다. 고레스는 같
은 해에 아스티아게스 (메대인 다리오)를 전복시켰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
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고레스의 칙령에 나타난다.

다니엘은 그 백성과 성전에 관하여 주님께 구하고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다니
엘에게 일곱 번의 70년 기간 후 그 백성의 통치의 끝과, 달리 말해 일곱 번의 70년
기간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계시하려고 택하셨다. 고레
스의 제 1주년 (주전 551년)부터 유대인들이 그들의 통치를 상실할 때까지(주전 61
년) 490년 (7x7) 이었다. [주전 551년+490=주전 61년]

다니엘은 단지 70년 시기의 끝에 관해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대신에
그 길이의 일곱 번까지 확장되는 지식을 계시하려고 택하셨다. 490년에 포함되는
사건들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해서 (이사야
44:28),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모든 통제를 상실하고 다니엘 2장과 7장에 언급된
열 황제들의 첫째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 종결점 (*terminus ad quem*)

은 율리우스가 유대인들에 대한 통제권을 인수할 때로 보인다(**김명현 박사는 폼페이의 개선식으로 보고 있다**).

다니엘서 9:24-27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는데, (1) 교회 교부들과 고대 정통적 해석자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고와 로마인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찾았고, (2) 근대 해석자들의 대다수는 전체 구절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때라고 지적했으며, (3) 약간의 교회 교부들과 오늘날의 몇몇 해석자들은 예언을 종말론적으로, 포로의 끝에서부터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발전의 선포로 해석했다.

또한 다니엘 9:25-27에서 그 백성과 그 성에 대해 결정되어 있는 70 이레는 세 시기 혹은 기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통 받아들이는데, (1) 일곱이레 혹은 49년 (25절)과, (2) 62 이레 혹은 434년 (25-26절)과, (3) 7년의 한 이레(27절)이다. 더욱이 이 마지막 기간은 각각 두 번의 3년 반으로 구분된다.(27절)

70 이레의 의미는 일곱 번의 70년이다. '이레' 라는 표현은 미쉬나 (the Mishina)에서 사용되고 있다 (산헤드린-Sanherdrin V.1.). 이 490년의 기간이 다니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결정되어 있다. 70번의 7수의 완결 이전에 여섯 가지 일들이 성취되어야 했는데, (1) 범죄를 마치고 (속죄하거나 끝을 내고), (2) 죄의 끝을 보고, (3) 불의에 대해 화해하고, (4) 영원한 의(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암시)가 오고, (5) 환상과 예언을 인치고 (확정하고), (6) 가장 거룩한 것(성전)에 기름을 붓는 (봉헌하고 헌신하는)것이다. 이 여섯 사항들은 다니엘 9:24의 70이레 안에 완결되는 것으로, 포괄적인 내용이다. 처음 세 사항들은 '범죄'와 '죄'와 '불의'라는, 세 가지로 부르는 죄를 다룬다. 가장 명백한 의미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죄와, 온 땅에 걸친 방향의 과정이 일곱이레 내에 완결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구하였던 이스라엘의 복원이 궁극적으로 이 개념으로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 세 사항들은 이방 나라들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언급한다. 이 측면들 중 아무 것도 주님의 개입 없이 사람에게 의해 도달될 수 없을 것이다.

25절에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에 대한 언급을 발견한다. 이것은 그 기간의 출발점이고 주전 551년이다. 고레스 칙령의 선포와 기름부음 받은 왕의 오심 사이에 일곱이레 혹은 49년의 시기가 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기름부음 받은 왕이 히브리 메시아라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기름부음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메시아를 가리킬 필요는 없다. 이사야 45:1에서 고레스를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메시아가 아니다. 여기에 언급된 '기름부음 받은' 자는 느헤미야라고 믿는다. 고레스의 칙령 후 49년인 주전 502년에 느헤미야는 다리우스 1세의 제 20년(히브리식 계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왕의 허락

을 얻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의 벽과 문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느헤미야 1:1-6:16에서 이야기한다. 포로에서의 귀환 (the return)이 아닥사스다보다는 다리오 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증을 위해서 부록 2를 보라.



다리오왕과, 페르시아의 4대 왕이고 가장 부요한 자였던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고레스의 칙령 후 49년에 하나니가 다리오 왕의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왔는데, 그 왕의 제 20년 곧 주전 502년 9월 (키스레브 월) 이었다. 성과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성벽의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다. (느헤미야 1:1-4)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기 위해 그의 조상들의 성으로 돌아가는 허락을 구했다. 그는 허락을 얻었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위임서와 함께 통치권을 받았다.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떠났던 하나니는 왕에게 영향력을 가진 그의 형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중이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 (cupbearer)이었던 까닭에, '기름부음을 받은 왕' 이라는 표현에 맞을 것이다.

26절은 25절에 나오는 62이레의 기간 (434년)을 반복한다. 이 시기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계획 이후이다. 26절에 언급된 기름부음 받은 자는 25절에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없는데, 이 기름부음 받은 인물들 사이에 434년(62x7=434)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기름부음을 받은 인물은 주전 68년에 살고 있다 (주전 502년 + 434 = 주전 68년). 히르카누스 (Hyrcanus)가 그 해에 대제사장과 왕을 겸한 그의 자리에서 제거되었다. 주전 68년에 이르는 역사의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하스모니안 가문에서 최초로 왕관(diadem)을 쓰고 스스로 왕이 된 자는 유다 아리스토틀루스 (Aristobulus, 주전 104년-주전 103년) 였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 엔 나이 (Alexannander Yannai, 주전 103년-주전 76년)가 뒤를 따랐다. 그가

죽자, 그는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 (Salome Alexandra, 주전 76년-주전 68년)를 여왕으로 남겼다. 여왕은 장자인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여왕이 죽고 나서, 히르카누스와 그의 동생 아리스토틀루스 사이에 내전이 터졌다. 두 형제 모두 그 땅의 왕이 되고자 했지만, 히르카누스가 실제로 그 나라의 상속자였다.

요세푸스는 이 갈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리고 히르카누스가 제 107회 올림피아드의 제 3년에 그의 대제사장직을 시작했고, 이 때 크빈투스 호르텐시우스와 크레테의 메텔부스라고 불리던 크비투스 메텔부스가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현재의 아리스토틀루스가 그를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는데, 여리고에서 히르카누스와 전투가 벌어지자 많은 그의 병사들이 그를 버리고 그의 동생에게 넘어갔고, 이렇게 되자 히르카누스는 요새로 도망하였는데, 거기에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의 어머니에 의해 갇혀있었던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고, 그곳으로 도망했던 그의 적들을 공격하고 정복하여, 성전 벽 안에 가두었다. 그래서 그가 그들 사이의 문제들을 합의하려고 그의 동생에게 전갈을 보냈을 때, 아리스토틀루스가 왕이 되어야 하고 그는 공무에 관여하지 않고 조용히 살며 그가 얻은 재산을 누려야 한다는 이 조건으로 대적을 그만두었다. 그들이 성전에서 이 조건에 합의하고, 맹세하여 합의를 확정하고, 서로 오른손을 잡고 전체 무리 앞에서 서로 껴안고 떠났는데, 먼저 아리스토틀루스는 왕궁으로 갔고, 히르카누스는 사인(私人)으로써 아리스토틀루스의 옛 집으로 갔다. (유대고대사 14권1장2절)

본문의 성취가 분명히 보인다. 기름부음 받은 자(히르카누스)가 끊어졌는데, 실제로 그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다. 상호 동의하여 복종하였고, 따라서 합의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아리스토틀루스는 왕이 되어야 했고 히르카누스는 사적 생활을 하였다. 그 (아리스토틀루스)는 이레 동안 많은 자들과 언약을 확정했다.

그리고 주제가 또 다른 왕으로 바뀌는데, 그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이 왕은 다른 자들처럼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게 다르다. 로마인들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하였다는 것은 기정된 사실이고, **26절의 왕(prince-통치자)은 주전 61년의 율리우스 시저로 보인다(김명현 박사는 그 왕을 폼페이우스로 보고 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주전 68년에 시리아-팔레스타인 북부의 지중해 지역을 점령하였지만, 주전 64년까지 이 형제들과 대립하지 않았다.

조금 후에 폼페이우스는 다메섹으로 갔고, 키엘레시리아로 진군하였는

데 이 때 모든 시리아와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유대로부터도 사신이 왔고, 아리스토틀루스가 큰 선물을 보냈는데, 500달란트가 나가는 황금 포도였다... 잠시 후에 사신들이 또 다시 그에게 왔고, 히르카누스로부터는 안티파트가, 아리스토틀루스로부터는 니코데모스가 왔는데, 결국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도 고발을 당했다. (유대고대사 14권.3장.1절)

폼페이우스는 두 사람의 이유를 듣고 아리스토틀루스의 폭력적 절차에 대해 정죄하고 나서, 떠났다. 아리스토틀루스는 그의 더 많은 부와 폼페이우스에게 준 선물 때문에 나라를 얻었고 폼페이우스는 그에게 약속했다. 그는 계속해서 충성하지 않았고 폼페이우스를 배신했으므로 폼페이우스는 그의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체 방어하지 않던 안식일에 공성무기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리고 평일에 그들과 전투를 벌일 참이었다. 성을 마침내 주전 64년 시반월 23일 안식일에 빼앗았다. 주전 64년까지. 그 이레의 중간에 폼페이우스는 시리아를 모두 점령하고 그 형제들 사이의 논쟁을 진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루살렘 성이 폼페이우스의 군대에 의해 무너지는 중에도,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중지하려 하지 않았다.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다음과 같다.



폼페이우스 (Pompey)

... 그리고 적들이 그들에게 닥쳐서 성전에 있던 자들의 혀를 잘랐지만, 제사를 드리던 자들을 강제로 달아나게 할 수 없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이미 살육한 사람들의 수 때문이기도 했는데, 바로 그들의 제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두고 나서 그들의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생략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전 자체에 관해 적지 않은 악독을 저질렀는데, 이전 시대는 접근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곳이다; 폼페이우스는 그리로 들어갔고 그와 함께 하던 자들도 적지 않게 들어가서, 단지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는 것이 불법인 것들을 모두 보았고... 그 다음 날 그는 성전을 맡은 자들에게 청소하고 율법 하나님께 요구하는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했고, 히르카누스에게 대제사장직을 복직시켰다...(유대고대사 11권.4장.3-4절)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틀루스는 폼페이우스가 그 이레의 중간에 제사를 중

지시키게 만들었다. (단 9:27)

도표 15: 70 이레 도표3)



유행하는 근본주의적 견해

이 예언의 해석자들 중에 69 이레와 70 이레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해석자들은 다니엘의 위대한 70 이레의 예언이 주전 445년의 느헤미야의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포괄한다고 일반적으로 결론짓는다. 7 이레의 첫 시기에 성과 도로들이 재건된다. 뒤이은 62 이레의 둘째 시기가 메시야가 나타나 이 시기의 마지막에 살아있다. 69 이레와 70 이레 사이에 삽입되어 적어도 두 가지 주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메시야가 끊어지고도 (그리스도의 죽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실제로, 현 시대 전체가 개입된다.

7년의 마지막 시기는 미래의 '장차 올 왕' 과 '많은 자들' 곧 이스라엘 백성

3) 김명현 박사는 70이레의 마지막을 율리우스 시제가 아닌 폼페이우스의 개선식으로 보고 있다.

사이의 언약 관계의 도입으로 시작된다. 이 언약은 미래의 7년 시기의 첫 절반 동안 지켜지지만, 그런 뒤 이스라엘에 주어진 특별한 자유와 보호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대환난의 때에 핍박을 받는다. 다니엘의 70 이레의 마지막 삼년 반의 시작은 미래의 성전 모독과 제사의 중지와 유대 종교의 황폐화로 표시된다. 그리스도에 의해 마태 24:15-26에서 큰 환난으로 언급되는 때가 그들이 추정하는 이 시기이다.

70 이레의 전체 예언의 절정은 이스라엘의 70 이레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4대 세계제국의 예언으로 묘사된 이방인의 때를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다니엘의 70 이레에 대한 이 해석의 몇 가지 주된 문제가 있는데, 1) 주전 446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는, 아닥사스다 1세 제 20년의 칙령이라는 것이 역사에 보전되어 있지 않고, 2) 그러한 명령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3) 에스라 6:14은 "고레스와 다리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칭호라고 가리키고 있다. 이 해석은 에스라-느헤미야의 연대기를 연속적으로 즉 간격이 없게 만들고, 4) 다니엘 9:24-29의 본문은 69째 이레와 70째 이레 사이의 간격을 요구하지 않고, 5) 신약 성경은 이 구절의 메시아적 해석을 요구하지 않고, 6) 요세푸스 역시 유대 정부의 끝이 역사상 그 때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닥친 이 비극의 계기는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틀루스였고, 서로 대항하여 난동을 일으켰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잃고 로마인들에게 복속되었다. (유대고대사 16권.4장.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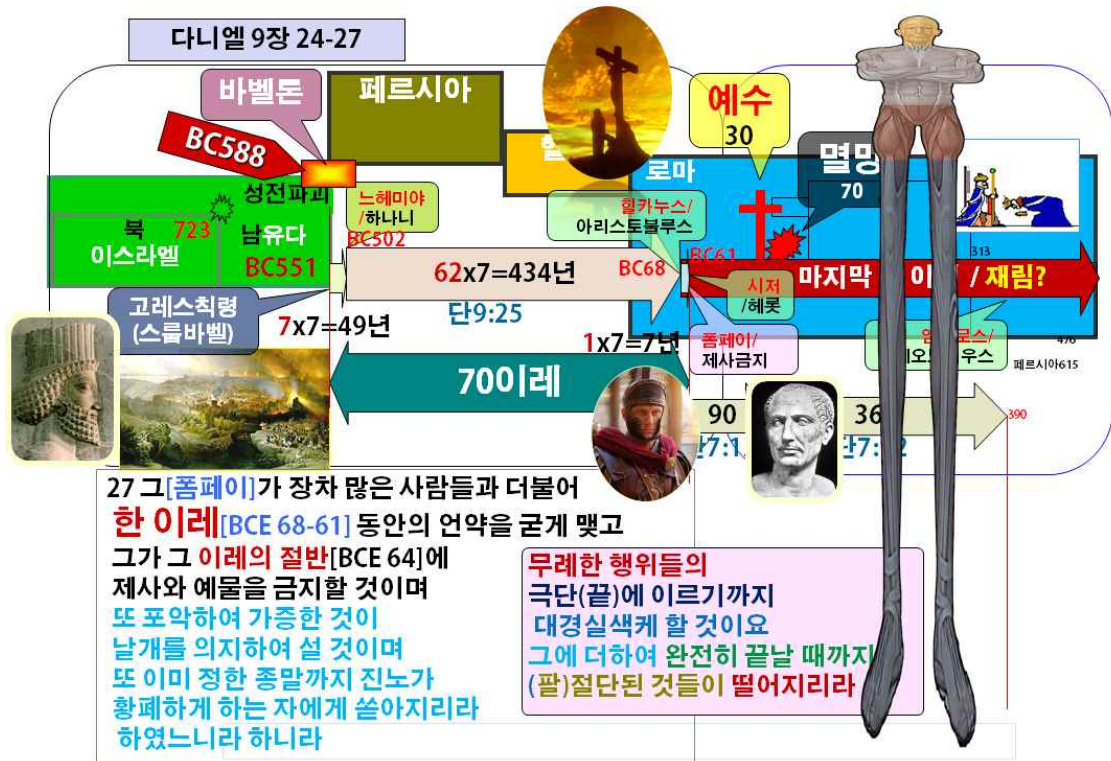
27절은 제사와 봉헌이 그 이레 (7년)의 중간에 그쳤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요세푸스 역시 아리스토틀루스가 단지 3년 3개월 동안 통치하였다고 진술할 때 이것을 인정한다.

... 그녀 (알렉산드라)가 죽고난 후 그 (히르카누스)의 동생 아리스토틀루스가 그와 대항하여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그의 주도권을 빼앗았고, 그 자신이 통치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대제사장의 직위도 수행했다. 그러나 그가 3년과 그만큼의 달수대로 통치하였을 때, 폼페이우스가 그에게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강제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식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로마로 보냈다. 또한 대제사장직을 히르카누스에게 복위시키고, 그를 그 나라의 통치자로 삼았지만, 왕관을 쓰는 것은 금지시켰다. (유대고대사 20권.10장.1절)

27절의 후반 절은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는 말 씀으로 성전의 모독을 서술하는 것 같다. "가증의 확산" 이라는 표현은 "미운 물건

이 날개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마카비 1서 1:54와 마태복음 24:15와 마가복음 13:14에 나오는데, 70인역과 테오도티안과 불가타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고대 번역들의 지지를 받는다. 다니엘 9:27의 표현과 이들 다들 참조 구절들의 일치뿐만 아니라 다니엘 11:31과 12:11 역시 그 의미를 여기서 분명히 해준다. 헝스텐버그는 “미운 물건의 날개”를 더 이상 주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리지 못하고 우상-성전 이라는 이름이 맞을 정도로 가증하게 모독을 당한 성전의 꼭대기로 간주했다.

70번째 이레는, 27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 *(김명현 박사는 주전 61년 폼페이우스의 로마 개선식을 70이레의 끝인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다. 이는 폼페이가 지성소 진압 작전 시 이방 인입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성소 휘장이 열린 것에 대한 표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로마개선식이 만왕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퍼레이드로서 예수님 앞에 모든 열방이 무릎을 꿇어 경배한 것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은 신성한 구원의 과정의 결말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에서 70 이레의 끝을, 구원자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고대 예루살렘에 대해 로마인들이 집행했던 심판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예언이 특별히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는다. 일례로 예수님이 그것을 객관적 교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도 할찌니라” (마 18:21-22). 일흔 번씩 일곱 번은 창세기 4:24에서 처음으로 이해되었다. 거기서는 가인을 통한 아담의 7대손인 라멕의 살인에 대한 저주로 본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논평은 직접 다니엘 9장을, 특히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24절의 그 구절들을 지적했을 수도 있다. 실례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범죄를 그칠 수가 없다.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이나 다니엘의 칠십 번을 되짚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서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떤 나라에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그의 참되신 정체와 소원의 증거들을 주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다. 이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친구가 되었지만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년 그들의 속죄일에 일흔 번씩 일곱 해를, 즉 490년을 주전 551년 고레스가 칙령을 공포하여 그들의 통치를 회복시켰던 때부터 주전 61년 로마가 그들을 통치할 때까지, 용서하셨다.